

2017년 5월 11일, 구좌읍 행원리 강순금 씨댁, 이현정 조사.
강순금(여, 1925년생, 구좌읍 행원리)

- 줄거리: 제보자는 과거에 물질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는데, 하루는 함께 물질을 하는 사람이 해산물을 많이 잡았다. 제보자는 이를 부러워하며 많이 잡은 것을 놀라워했는데, 상대방이 꿈에 물이 들어서 해산물을 많이 잡을 수 있었던 것이라 답변하였다고 한다. 흔히 해녀들 사이에서는 꿈에 물이 밀려들어오거나 해산물이 꿈에 나타나면 그 다음날 물질이 잘 된다는 말을 한다.

[조사자] 그믐 물질할 때, 어떤 꿈이 막 보이민 전복허고 소라허고 많이 잡아진덴 험니까?

[제보자] 아니, 바당에 가민 저

“아따, 야! 느 소라 하영 헛저?”

헤민

“아유, 나 밤이 물 시편. 꿈 잘 받 물 시편. 바당물 시꾸난 영 ㄱ득엇주.”

이 말만 들엇어.

[조사자] 바닷물이, 꿈에마씨?

[제보자] 응, 경 허영 시꾸난 ㄱ득안.

“야! 느 고둥 하영 헛저.”

하난

“꿈 막 받 왓우다.”

“무신 꿈 받디?”

“물 시꾸민 막 잡는 거 아니꽈?”

헝 그 말만 들엇어. 딱 그 말. (웃음)

“야 너 고둥 어디 강 잡안디? 느 조케 숨빈디.”

“아유, 나 밤에 꿈 잘 봤우게.”

“무신 꿈을 받디?”

“물 시꿍디다.”

경 헝 헝 말만 나 들엇어게.

- 핵심어 : 바당, 소라, 고둥, 물질, 밤, 꿈, 물, 해녀